

“이마트 10월 철거”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 강력 의지

이동훈 대표, 타 업체 진출 앞두고 “매출 1위 뺏기지 않는다” “지하도·도로 개설 등 시 요구 수용…현재의 4배로 키울 것”

광주신세계가 이마트 광주점 철거를 예고하는 등 백화점 확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백화점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공개석상에서 ‘현 백화점 부지 활용 방안’과 ‘광주시 조정안에 대한 입장’, ‘주변 상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마트 광주점 철거…“확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동훈(사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이마트 광주점 해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광주신세계 확장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철거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많이 남아있지만 광주신세계 확장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마트 광주점을 부식야 ‘새로운’ 광주신세계를 위해 땅을 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영업을 시작한 이마트 광주점을 오는 9월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이마트 광주점은 광주신세계 확장 이후 현재 규모보다 15% 상당 축소돼 다시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은 현재 광주시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확장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와 롯데쇼핑의 광주진출 가능성을 두고 백화점 매출 1위를 빼앗길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광주신세계 확장은 광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타 업체의 광주진출이 광주신세계 확장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 이달 안까지 제출=광주신세계는 현 백



앞서 지난달 30일 지구 단위 계획안이 조건부로 첫 번째 행정절차를 통과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 계획 주민 제안) 입안에 8개 조항을 조건부로 동의했는데,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화점 옆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옛 모텔하우스 부지를 합쳐, 지금보다 약 4배 큰 규모(지하 6층·지상 7층 연면적 24만 8000㎡)로 확장을 추진 중이다.

우선 당초 ‘동-서’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뚫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광주신세계 계획과는 달리, 광주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북-남’으로 뚫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따를 것”이라고 했다.

김영철 광주신세계 관리이사는 “교통영향평가와 각종 용역결과에서도 ‘동-서’가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광주시가 5년 전 수립한 도시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광주시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8개 조항 중 하나인 ‘주변 민원의 적극 해소’는 광주신세계가 도로 개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기부 채납하는 만큼, 도시계획위의 의견처럼 광주시가 발주처로 나서준다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신세계는 또 최초 ‘일방향’으로 제시했던 ‘-자 형태의 대체도로를 광주시가 ‘양방향’으로 수정하라고 한 것에 대해 “오히려 금호월드 차량흐름에 지장이 크다”면서도 요구에 따를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또 기존 백화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콘텐츠를 채워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백화점 건물은 광주신세계에서 금호에게 보증금 5270억원을 내고 임차해 사용 중이다. 광주신세계는 새로운 백화점이 운영에 들어가는 2027년부터 임차가 만료되는 2033년까지 코엑스 별마당도서관 같은 콘셉트로 채워 운영할 계획이다.

인접 상권인 금호월드와 풀어야 할 문제는 협의에 전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월드는 권리단, 상인연합회로 나뉘어 단합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 공문을 통한 뚜렷한 요구 사항도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우리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연결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는다”며 “오는 28일까지 요구사항을 접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이밖에 8개 조정안에 대해 이달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받아야”

광주경총, 친환경 미래차 산업 고도화에 꼭 필요…산자부, 12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사진)는 9일 광주가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경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까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가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은 영커(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들을 집적해 기업 간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경총은 이에 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미래차 산업으로 고도화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자동차 산업은 1965년 아시아자동차공업 설립을 시작으로 지난 58년간 우리 지역 경제의 중

추적인 역할을 맡아왔다”며 “그러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2040년까지 내연차 판매 급감을 예상하고 있어 우리지역 기업의 미래차 전환 실패 시 기업 존폐는 물론 광주지역 경제의 최대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또한 미(美)·중(中) 패권 경쟁 등 전 세계적 인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자동차 분야에 대한 공급망 미확보 시 우리지역 자동차산업은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지역은 진곡산단과 빛그린산단, 신곡국가산단 등 3개의 대상 산단이 있는 데다, 첨단산단 등 지역주력산업 거점산단(협력산단)과 연계 협력을 통해 미래차 소부장 공급망을 완성할 수 있

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지역 내 자동차 소부장 기업들도 미래차 투자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지역경제는 광주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우리지역 내 자동차 소부장 기업들도 미래차로의 생산 전환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며 “지난 3월 지역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을 포함한 67개 기업이 2조 400억원에 달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가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과 공급망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소부장 R&D, 기반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시책공제, 규제개선 등의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광주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효성첨단소재, 광주비엔날레에 스완카페트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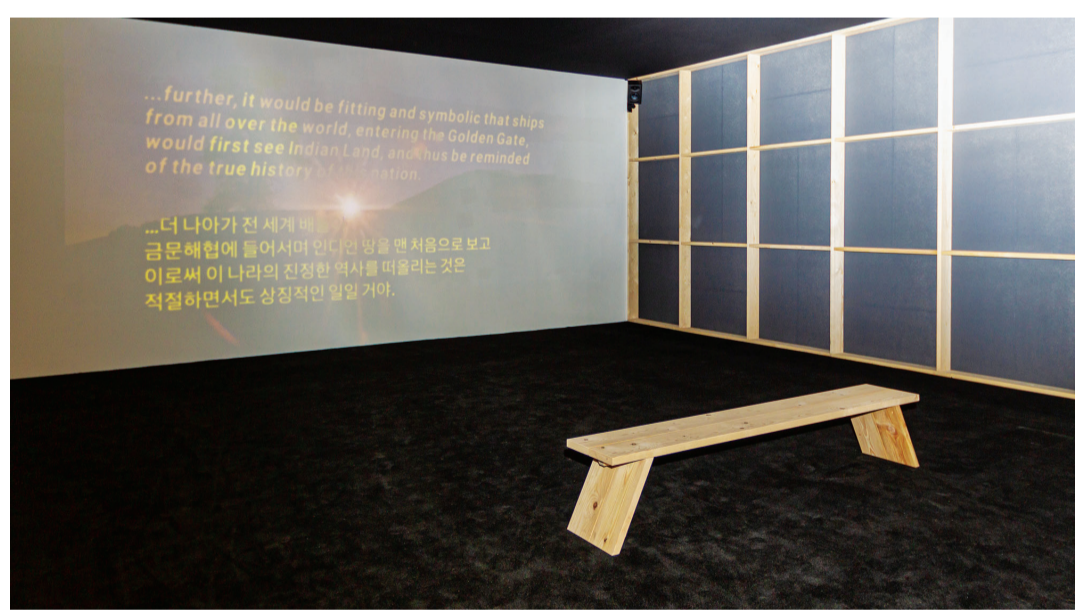
효성첨단소재(주)는 지난 7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 전시관용 카페트를 후원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1회 개최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회다. 올해에는 세계 32개국에서 79명(팀)의 작가가 참여해 ‘물처럼 부드럽고 여기저기’를 주제로 전 지구적인 공존과 연대를 담을 예정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저자 제품인 스완카페트 1270㎡(약 385평) 분량을 제공했다.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 소재의 롤 카페트 제품으로 호텔, 전시장, 클럽하우스, 오피스 등 다양한 공간에 적합한 제품이다.

제공된 롤 카페트는 광주비엔날레 주 전시관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외부 전시 공간인 ‘예술공간 집’ 등지에서 국내외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 전시에 활용됐다.

효성첨단소재(주)엔지니어PU의 ‘스완카페트’는 1983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BCF원사부터 카페트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높은 품질의



효성 스완카페트가 사용된 전시관에서 스카이 호핀카(Sky Hopinka) 작가의 작품이 상영되고 있다.

카페트를 공급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 카페트 시장에서도 뛰어난 흡음 기능과 경량화 제품들로 자동차 제조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대재해법 설명회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창호)는 오는 20일 광주시 광산구 도동동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 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업장의 대응방안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955-9966(내선번호 2098#).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전자입찰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13개 기업 무료 지원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중소기업 맞춤형 전자입찰 컨설팅 참여기업 13개사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공공 및 민간 입찰 낙찰률을 높이고, 입찰 전문성 강화 및 매출증대를 위해 2010년부터 광주시 지원을 받아 추진해 온 사업이다.

컨설팅은 입찰전문가의 전화 및 방문으로 진행되며 전자입찰 참여를 위한 각종 증명·인증발급 및 등록 준비지원, 동종업계 낙찰현황 분석, 사정률 예측

및 적정 투자금액 산정 등 기업에서 원하는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광주상의는 지난 13년간 해당 사업을 통해 6000여개 기업에 약 1조원 규모의 낙찰을 지원해 경기 침체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기업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업의 입찰 정보 수집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컨설팅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은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icc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협력사업본부 전화(062-350-5891)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이후 고병일(오른쪽) 광주은행장과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에너지공대에 장학금 20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찾아 인재육성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달된 장학금은 광주·전남지역 고용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중인 지역 대학의 교육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고병일 은행장은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 외부 유출을 방지코자 다양한 ESG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최근 (재)광주서구장학재단에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비롯해 강진군장학재단과 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각각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외 신학기 1000만원 교복 후원 등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국세청, 친환경 실천 나무 심기·플로깅 행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지난 7일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나무심기와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날 윤영석 청장은 지방청 간부 및 광주청사 관리소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광주합동청사 정원에 토종나무인 회화나무 등을 심었고, 광주국세청 직원 30여명은 청사 주변 쓰레기와 폐기물을 치웠다.

윤영석 청장은 “오늘 우리가 심은 나무가 크게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자연의 가치를 되새기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등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인 ‘에너지·자원절약 실천’ 캠페인의 하나로 기념일에 나무 심기, 건강계단 이용하기, 일회용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전기 및 물 절약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6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0	31	32	40	41	45	1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801,933,804	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5,229,257	68
3	5개 숫자일치					1,662,515	2,668
4	4개 숫자일치					50,000	133,599
5	3개 숫자일치					5,000	2,278,058